2011 새해에는

8 송기진 광주은행장

"당기순익 3천억 달성 어렵지 않다"

브랜드 가치 계속 상승
공격적 영업 활동 박차

"2011년은 광주은행 브랜드 가치를 더욱 향상시키는 해가 될 것입니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올해 경영화두를 힘들고 어려울 때 마다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의 '자강불식(自强不息)'으로 삼고, 당기순이익 3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이 어닝 서프라이즈(High Earning Surprise·예상을 깨는 우수한 실적)'를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최대 수익 실현에 도전하기로 했다.

송 행장은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해 광주은행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상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영업실적을 올렸고 국가품질경영대회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브랜드 가치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송 행장은 "올해는 광주은행 브랜드 가치 제고를 역점에 두고 내실을 다져 세계 100대 은행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으로 ▲리스크관리 강화와 건전성 제고 ▲리테일(개인소비자)·중소기업 영업력 강화 ▲비이자이익 증대 및 수익기반 확충 ▲미래성장동력 확충 ▲고객만족도·브랜드 가치 제고를 꼽았다.

송 행장은 "광주은행의 여·수신 시장 점유율이 늘고 있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 만큼 서울과 전남 지역에서 당기순이익 1000억원씩 달성한다면 '당기순이익 3000억원 시대'를 여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민영화 등으로 광주은행이 격동의 중심에 있는 만큼 수익기반을 확충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송 행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로 금융권은 우리금융,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4강 체제로 재편돼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말 기업회생본부를 신설하고 국제금융부를 확대개편 하는 등 영업력 향상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은행으로서 지역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대동맥 역할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송 행장은 "당기순이익의 4~5%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실익을 떠나 신안, 구례 등 전남 지역 금융 소외지역에도 점포를 개설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펼쳐 지방은행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성 출신인 송 행장은 벌교상고와 건국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 노조위원장, 우리은행 수원기업영업 본부장, 중소기업 고객본부장(부행장)을 지냈다. 문화부장관표창, 동탑산업훈장,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 경영자대상, 전국경제인연합회 특별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직장인들 설 연휴 "31만6천원 쓰겠다"

직장인들은 올해 설 연휴 기간에 평균 31만6천원 정도를 쓸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1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설 연휴 지출액은 평균 3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기혼자(39만6000원)가 미혼자(22만6000원)보다 평균 17만원 정도 많이 지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항목으로는 부모님 용돈 및 선물(57.7%)이 가장 많았고 교통비(10.6%)와 음식 준비 비용(8%), 여가비 및 문화생활비(6.6%)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올해 지출 예상액이 작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50.8%)이라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다.

작년보다 줄었다(13.2%)는 응답보다는 늘었다(36%)는 답변이 많았다. /연합뉴스

"원재료값 내려도 소비자 가격 그대로"

주스·호일·맥주는 되레 인상

제조업체들이 원재료의 가격 인상은 소비자 가격에 재빨리 반영하면서 원가 인하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5개 생필품의 원재료 가격 및 소비자 가격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품목은 설탕, 과자류, 커피, 고추장, 랩, 분유, 아이스크림, 합성세제 등 8개 품목이었다. 이들 품목 중 설탕, 고추장, 랩, 아이스크림, 합성세제 등 5개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즉시 인상됐다.

반면 원재료 가격이 인하된 품목은 밀가루, 오렌지주스, 호일, 우유, 라면, 식용유, 맥주 등 7개 품목이었으나, 이들 품목은 소비자 가격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렌지주스, 호일, 맥주 등 3개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인상됐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오렌지 원액의 경우 지난해 가격이 2009년보다 평균 22% 하락했으나, 소비자 가격은 5% 인상됐다. 호일은 평균 10% 하락했으나, 소비자 가격은 16% 올랐다. /연합뉴스

코스피 또 최고치 경신 코스피가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다. 1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9.21포인트(0.92%) 오른 2,115.69로 마감해 4거래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가 '100만원 시대'

삼성전자 주식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선을 돌파했다.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오후 2시44분께 전날보다 3만1000원 오른 100만원에 거래됐다가 3000원 떨어지며 99만7000원에 장을 마쳤다.

송종호 대우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100만원은 역사적·심리적 저항선"이라며 "이날 100만원 돌파는 스마트기기 시대에 삼성전자의 가능성에 대한 첫 단계 재평가가 확실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도 나흘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9.21포인트(0.92%) 오른 2115.69로 장을 마감했다. 장중 한때 최고치는 2119.24까지 끌어올렸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대거 순매수한 것이 사상 최고치 경신을 가능케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중기 40% 설 자금 '팍팍'

중소기업들은 40% 이상이 올해 설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59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자금 사정에 대해 '곤란하다'고 답한 업체가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응답한 곳은 14.7%에 불과했다.

작년에 이뤄진 동일한 조사와 비교할 때 자금 사정이 곤란한 업체의 비중이 4.6% 포인트 줄고 원활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4.7% 포인트 늘어나 자금 형편이 지난해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관장 선물세트 설 마중갑니다"

한국인삼공사(www.kgc.or.kr)는 '정관장' 설 선물세트 16종을 새롭게 구성,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스페셜 秀 A호' (11만1000원)는 '홍삼톤마일드'와 '홍삼정차마일드' 로 구성한 10만원대 인기제품으로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좋은 상품이다. 프리미엄 A(32만원)는 홍삼추출액과 양삼 30지(300g)로 구성된 고품격 선물세트로 추천할 만 하다.

홍삼을 다양하게 즐기려는 고객은 '뉴 프리미엄 E호(13만원)를 추천할 만하다.

고객만족도가 높은 '홍삼톤 골드'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홍삼정차, 홍삼차 등 3가지 제품으로 구성돼 다양한 홍삼제품을 경험하려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홍삼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맛의 홍삼톤 마일드와 비타센스, 홍삼캔디가 포함돼 있는 '뉴 스페셜A호(11만원)를 추천한다.

한편 인삼공사는 설맞이 고객 사은행사로 2월2일가지 건강기원금 증정, 더블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

光銀, ING은행서 1900억 외화차입

광주은행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오전 싱가포르에서 네덜란드계 은행인 ING은행과 1억3000만 유로(원화 1900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 서명식을 갖는다.

광주은행은 이번 외화 차입으로 풍부한 유동성 확보와 함께 외화 유동성 위험 관리 부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이 자금은 광주·전남 수출·입 기업의 외화자금 지원에도 쓰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은행은 현지시간 19일 오후 동남아시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서 인도차이나은행과 '국제금융 및 외환업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은미기자 emlee@

■ 새얼굴

"中企 자금지원·경영컨설팅 제공"

김양채 기업은행 호남본부장

"중소기업이 힘차게 도약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14일 취임한 김양채(54)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를 고객과 함께 할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주 신흥고와 전북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1983년 기업은행에 입사해 직원만족부장, 부천시 소사지점장, 주안공단 기업금융지점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